

20세기 초엽 독일 현대춤에 나타난 실존적 의미와 해석*

김말복** · 이지원***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독일 현대춤에 나타난 인간의 유한성,
파토스 그리고 주체성에 관한 논의 |
| II. 실존주의 철학의 개념과 의미 | V. 나오는 말 |
| III. 20세기 초엽 현대춤에 나타난 인간
실존의 문제와 해석 | 참고문헌 |
| | Abstract |
-

I. 들어가는 말

실존주의는 20세기 즈음 현대사회로의 변혁과 삶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인간 스스로의 문제에 관한 관심을 반영한 철학 사상이다. 여기에는 실증주의식의 물질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소외를 경험하고 존엄성이 상실되는 시대에 대항하여 인간 실존에 관한 주체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독일의 나치즘은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당시 유럽인들에게 공포와 충격이었다. 합리성은 낙관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현실적 계층기가 아니라 비인간적 일을 도모하는 도구임을 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존주의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청이었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275).

** 주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연구원, wjoinlee@empas.com

실존주의 철학의 특징은 ‘인간’¹⁾에 관한 조명이라 하겠다. 실존주의 인간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존엄성에 관한 반성과 더불어 성찰로 이어진 사상으로 휴머니즘적 성격이 강하게 표출된다. 인간이라는 존재, 경험,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여 의지, 자유, 개성, 자아 등을 강조한다. 고대 존재론의 실존(existentia)²⁾이라는 개념이 사물 일반의 현 실태를 뜻하는데 반해, 실존철학의 실존(existence)이라는 개념은 오직 인간 존재만을 지칭³⁾하는 것으로 인간만의 실존을 의미하게 되었고 본질에 대한 현실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은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샤르트르로 이어져 인간에 관한 물음과 성찰에 주목하였으며 현대 사회 속 인간의 부정적이고 낙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한편 주어진 상황들의 난관을 현명하게 개척하려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고독한 단독자로, 샤르트르는 진실한 자기를 찾는 과정을 포함한 주체성에 관하여 강조하는데 이러한 논점은 본고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실존주의의 필연성은 20세기 초엽 예술로 기울어져 무용, 문학, 음악, 미술, 등 깊은 영향을 미쳤고 시대와 교감하였다. ‘예술은 여타의 어떤 매체보다도 한층 깊

-
- 1) “플라톤은 인간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존재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했고 니체는 권력의지로 충만한 존재,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망이 가득한 존재,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존재, 화이트헤드는 끊임없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의 존재로 생각했다”. (김기현외(2013),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서울: SFC출판부), p.65).
 - 2) “실존(existentia)이라는 말은 라틴어 *exist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밖에(ex)와 있다(sistere)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자기에서 출발한다는 ex와 전에는 가능하던 것의 수준에 자기를 올려놓는 일 *sistere*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즉 가능성을 실현시켜 무엇인가로 되어간다는 *devenir*의 의미인 것이다.” (Paul Foulquie(1978), 『실존주의』, 박은수(역)(서울: 정음사, 1983), p.57)
 - 3) 이중(1972), 『교육과 사상』(서울: 배영사), p.86. (“짐승이나 돌에 대해서는 실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존재할 따름이다. 인간은 물건이나 도구와는 다른 독특한 존재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존재 방식을 실존이라고 일컫는다. 한 개의 돌, 한 포기의 풀, 한 사람의 인간, 한 마리의 개, 모두 다 존재는 세계가 있지만 그 존재 방식의 내용과 질서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고 감각하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인격적 주체이다. 자기를 판단과 의지와 책임 하에 선택하고 결단하는 행동적 주체가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이다.”

이 문화발달 속에 뿌리를 박고 있는 표현수단이라는 점에서 또한 예술의 영향 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동기, 대상, 소재 및 토대로 인하여 역사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 할 수 있다.⁴⁾ 특별히 춤은 인간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예술로서 인간 존재의식을 생동감 있게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예술가와 현실의 절대적인 구분, 현실과 무관한 미적체험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술작품에 환경과 사회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작가의 작품을 통해 반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철학의 사조라 할 수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개념과 의미를 조망하고 실존주의적 의미를 춤에서 추출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사실 춤에서의 지난 연구들은 실존철학에서 이어진 현상학으로 메를로 폰티의 신체관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이성과 대치되는 신체에 관한 논문들은 학계에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나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무용의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용자체가 방대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존철학에 관한 접근은 1993년 박인순의 논문⁵⁾이 교육적 측면으로 치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외에 전무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존철학의 ‘인간존재’에 관한 초점에 무게를 두고 예술작품과 실존적 의미, 그리고 표현을 다루어볼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의 개념과 의미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실존주의의 배경과 의미를 다루고 주요테제인 ‘인간존재에 관한 의미’를 중심으로 춤과의 연결고리를 두고자 한다.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논점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다. 각각의 논의는 실존주의자들에게 혼재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존하는 인간에 관한 지점을 ‘죽음을 향한 현존재’와, ‘소외된 불완전한 존재’, 그리고 ‘주체적인 존재’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현대춤에 관한 인간실존의 문제와 해석적 지점을 앞선 논의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필 것이다. 죽음에 관한 논의를 ‘인간의 유한성에 관한 목도’로 접근하고,

4) 아놀드 하우저(1973), 『예술과 사회』, 한석중(역)(서울: 흥성사, 1981), p.106.

5) 그러나 박인순의 논문은 실존주의 철학을 통한 무용의 접근을 이루었으나 여기에는 교육적 측면과 수행자적 측면 그리고 관람자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기에 본고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다(박인순(1993), 실존주의 철학을 통한 무용의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소외와 불완전성에 관한 시각을 '고독과 불안의 파토스(pathos)로의 귀환'이라는 타이틀로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체적 존재로서의 이해를 '주체적 체험을 통한 기존 가치의 거부'라는 주제로 현대춤의 표현과 움직임의 살피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앞서 인용한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르, 샤르트르의 중심논의를 중심으로 추출한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실존주의적 색채가 가장 짙게 나타나는 독일의 대표적 현대무용가 마리 뷔그만과 쿠르트 요스의 작품을 접근하여 볼 것이다. 이들의 작품을 선정할 이유는 실존적 한계에 관한 좌절과 절망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스스로를 재창조하기 위한 실존주의적 주제가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존적 자기표현의 사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들 작품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과 파토스 그리고 주체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사실 실존주의 철학을 몇 장의 논문에 담아내는 작업 자체가 녹록치 않으며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하지만 현대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존주의의 의미를 개괄적이나마 살피고 이것을 현대춤에 대입하여 사회, 문화적 현상을 진단하며 춤의 가치를 조망하고 재정립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한 실존은 하나의 구체적인 단독자로 남과 대응하거나 대치할 수 없는 독자적인 의지와 가치를 지니는 개별자로서 설명한다. 이것은 본래적 자기를 몸으로 말하고 독자적으로 현실을 조명하는 현대무용가들의 작업을 읽어내는데 주요한 토대이자 근거이기에 본 연구의 의미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철학 사조의 하나인 실존주의의 의미와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춤 해석의 새로운 관점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실존주의 철학의 개념과 의미

1. 실존주의의 배경과 의미

산업혁명이후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과학과 합리주의 사상은 인간을 위협하였고 고도로 발달한 현대과학문명은 자기 소외와 고립감을 경험하게 하였다. 여기

에 세계대전이 가져온 불안과 허무는 기존의 객관적인 존재 질서와 신념을 파괴하였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철학자들은 인간의 정신과 인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신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자 하였다.⁶⁾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며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왔지만 인간은 진행과정에서 목표자체를 목적으로 설계함으로 인간존재를 스스로 상실하게 만들었다. 인간 존재보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 버렸고 대량생산과 같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은 취미와 성향까지도 획일화시켰다. 현대인은 이런 조직사회에서 일원으로 순응하면서 주체가 아닌 삶으로 고독감과 불안감을 커지고 생활은 무감각해졌다.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는 문명화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 현대인은 표면적으로는 무엇이든 알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현대사회의 경이적인 변동 속에서 문명은 발달했으나 인간은 병들고 죽어갔다.⁷⁾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일상의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없이 물질문명의 경이로움만 쫓다보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고 불안정하고 텅 빈 공허감을 느끼는 인간으로 변모해 버린 것이다.

실존주의는 근세의 이성적 합리주의, 범논리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타나 불안과 허무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단위, 기계의 부품 그리고 객관이라는 이름하에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의 불안과 실존적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인간 소외, 인간 상실의 시대에서 인간 주제라는 사명을 가지고 등장하여 상실한 자기의 모습을 되찾고 본래의 자기에게 환귀함으로써 자기 소외, 자기 상실의 상태에서 회복과 귀환을 염원하는 사상이라 하겠다.

실존주의 철학은 생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칼 야스퍼스와 마르틴 하이데거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상의 틀을 갖추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문학이나 예

6) 마중수(2001), 인체 형상을 통한 현대인의 내면세계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0.

7) 임춘식(1991), 『현대사회와 인간 소외』(서울: 한남대학교 출판부), p.77.

술의 분야로 확대되었고 장 폴 사르트르나 알베르 카뮈, 카프카 등 문학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흐름을 완성하였다. ‘본질’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유신론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행동적 실존주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양 철학에 처음으로 개인과 각자가 가진 고유한 정신을 고민하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수용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실존주의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눈다면 하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⁸⁾와 가브리엘 마르셀⁹⁾을 꼽고 또 다른 하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 니체,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메를로龐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에서 공통되는 점은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을 ‘죽음을 향한 현존재’, ‘소외된 불완전한 존재’, ‘주체적 존재’라는 주제로 풀어서 다루어 볼 것이다.

1) 죽음을 향한 현존재

근세의 계몽주의와 그 뒤를 이은 독일 관념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인류사회는 진보하고 향상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우상은 20세기 초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무참하게 파괴되었다.¹⁰⁾ 절대자를 자처하던 인간이 이제 그 유한성을 쓰라린 현실로 좌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인간성이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즉 불안을 통과할 때에만 참다운 실존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언급¹¹⁾하였다. 이것은 동시에 소외된 불완전한 존재로서 인간을 해석하는 것

8) 야스퍼스(Jaspers, 1883-1969)는 독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 인간의 존재는 의식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존재는 어떤 전체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그 상태를 초월하려면 종교적인 좌절에 의하는 바, 즉 신에게 도달하는 길이라 하였다(장폴 사르트르(1981),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역)(서울: 문예출판사), p.13.).

9)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 1889-1973)은 프랑스 철학자로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와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유신론적 실존철학자로서 사르트르와 대치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서는 『존재와 소유』가 있고 ‘인간의 존재는 그 본질에 앞선다’라는 점에서 사르트르와 일치하나 사르트르가 신을 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마르셀은 전적으로 신에 귀착하는 데에서 차이를 지닌다.

10) 백은정(2001), 도시 주변 개체의 일상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4.

으로 키에르케고르에게 인간은 죽음에 이를 병에 사로잡힌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설파했는데 이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자,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신이 죽었기에 모든 존재와 가치의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은 신이 베풀어준 생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던져진 존재일 뿐이며 누가 무엇 때문에 나를 던졌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나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의 출생이전과 이후는 완전한 무이다. 우리는 무(無)위에 떠있으며 우리는 무(無)위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기에 불안한 것이다.

인간에게 발을 디딜 곳이 없어 헤매는 모습을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가 무위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불안한 것이라 보았다. 인간의 존재에는 아무런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외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 우주공간에 그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우연하게 내팽개쳐진 존재라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세계관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인간은 이 우주공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내팽개쳐져 아무런 합목적적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실존의 불안과 부조리함에 있어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개별적 실존과 그 실존의 상황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별 이견은 없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언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어 내일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함과 무상함을 내재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기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한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2) 소외된 불완전한 존재

지금까지 전통철학에서는 본질이라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헤겔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일차적인 문제는 사물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모든 존재가 본질에 의해 설명되고 파악되었다. 도구는

11) O.F 볼노브(2006), 『실존철학입문』, 최동희(역)(서울: 간디서원), p.110.

만들기 전에 제작과정에서 개념과 본질을 구성한다.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이념과 본질의 관념이 앞선다는 의미로 컵이나 그릇과 같은 도구적 존재는 용도나 목적이 우선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구적 존재에 있어서는 본질이 존재보다 앞선다.

그러나 인간은 도구처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규정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도 미리 규정되어지지 않은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각적 선택과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이런 실존 선행론은 결국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은 도구처럼 본질이나 목적이 먼저 결정되어있지 않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해석이다.

하이데거의 ‘던져진 존재’는 우리가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낳아지고 살면서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헤겔 철학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가치, 정신적 현실성은 오직 국가에 의해서만 소유될 수 있고 개개인의 인성이나 가치관은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나 사회 속에 묻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은 개개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방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벽돌로 쌓아지는 비인격적인 인간의 모습이었다. 개인의 요구를 포변화시키고 전체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와 국가와 사회의 강요된 억압과 체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모든 사고의 중심과 행동을 포변적인 대중과 전체에 맞추다보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²⁾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 1813-1855)는 이에 대해 내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마음을 뚜렷이 아는 것이고 내게 진리가 되는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성을 지닌 실존하는 개인이 진리로써 사는 것이 주체적 진리이며 이것이야말로 실존하는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라고 언급하였다.¹³⁾

12) 김중호(1983), 『역사철학I』(서울: 삼성출판사), p.83.

13) 임춘감(1980), 『키에르케고르의 생애와 사상』(서울: 종로서적), p.225.

3) 주체적인 존재

키에르케고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체성이라고 주장했다. 주체적이고 내면적인 인간관,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헤겔의 철학에 반발하여 주장한 인간관의 모습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실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주체적 진리라고 정의하고 주체적 진리에 도달하려면 주체적 사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행동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이데거 역시 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이 그의 주체성 즉 자기 실존의 본질을 파악 했을 때 비로소 세계의 한계를 초월 할 수 있고 자기의 운명을 결단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¹⁴⁾ 인간은 무에서 출발하여 자기를 결정하고 만들어간다. 인간은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형성해가고 그 과정에서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지니게 되며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과 자각을 가지고 행동의 자유를 가지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다.¹⁵⁾

샤르트르는 자신의 사상을 실존적 휴머니즘이라 칭함으로써 직접적인 인간 존재의 입장에 서고 있다.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은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즉 인간 스스로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는 것이며 또한 구속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계를 떠나서 딴 세계는 있을 수 없고 인간은 자신이 기원이며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루기에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⁶⁾ 이것은 인간 자유의 사상을 그리는 것으로 인간 주권적 자기 제어와 자기지배로서 특정지어질 수 있는 자유라 하겠다.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이며 자기의 실존으로부터 자유로이 자신을 선택하고 창조해 가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마침내 원하는 인간 이상형에 도달 할 수 있다는 낙

14) S.E. 프로스트(1982), 『철학의 이해』, 서배식(역)(서울: 현암사), p.365.

15) 마중수(2001), pp.11-12.

16) 반리이센 외, 『니체 샤르트르, 프로이트, 키에르케고르』, 이창우(역)(서울: 종로서적, 1983), p.57.

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¹⁷⁾ 이는 인간이 행동의 주체이자 책임을 동반하는 선택의 주체라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사르트르의 실존은 자아의 확실성이 그 주체가 된다. 이는 자아와 자아의 확실성 뿐 아니라 타인의 실존에 대한 인정도 포함하는 것이다. 자아와 타인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 아는 것에서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존주의는 객관주의 철학이 아니라 주체주의적 철학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도 악도 아니며 학식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없음에서 출발하여 자기를 결정하고 자기를 만들어 나아가고 자기에게 실존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객관적 대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관상의 철학이 아니고 주체적 자각과 결단과 실천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철학이기도 하다.¹⁸⁾ 개인적 생각, 책임과 자유가 중요한 것으로 인간운명의 주인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 정의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실존주의에 관해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존주의 사상가들 마다 차이가 있고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향이 다르다. 그러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존이라는 공통점은 불안한 인간 존재는 자기를 찾으려는 노력과 의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자문 속에서 나를 찾아 길을 나서는 것이다. 길 위에 자아는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불안한 인간 자체이지만 새로운 절망을 마주하고 또 다시 새로운 이상을 유도하는 계속적 단계를 거듭하는 개별자이자 주체자이다. 다시 말해 본래적인 나의 앞에 있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고민하는 주체적 자아이자 행동을 감행하는 자이다. 이것이 실존주의를 관통하는 근본 개념이라 요약할 수 있겠다.

17) Frite Heineman(1976), 『실존철학』, 황문수(역)(서울: 문예출판사), p.188.

18) 마중수(2001), p.13.

III. 20세기 초엽 춤에 나타난 인간실존의 문제와 해석

1. 초기 현대춤에 관한 실존주의적 해석

실존주의가 20세기 초반의 현대춤을 특징짓는 주요 주제의식 중 하나였으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예술에 적극적으로 반영¹⁹⁾되었다. 사실 실존주의의 특징적 현상과 지향점을 고려할 때 결코 한 시대에 유행했던 사유체계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20세기 이후 전통적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도덕적 파편화현상이 가속화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 초반에 보여준 인간실존의 모습을 담지한 현대춤의 움직임은 오늘날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현대춤이라는 명명 하에 이사도라 덩컨, 마리 뷔그만, 루돌프 라반, 테드 쇼운과 같은 예술가들의 행보는 오늘날의 춤과 가치를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태로 작용하였다.

20세기 현대무용가들은 인간의 몸짓을 통해 현대문명과 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지 보고하였고 현대인의 갈등, 불안, 고독을 작품에 담았다. 실존적 상황을 전통적 가치 체계의 결별과, 죽음의 문제를 얹매이지 않는 형식으로 담아 내었기에 실상 실존주의자들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존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개인적, 주관적 체험에 의한 실존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 체계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명령을 중요시하며 자신만의 가치 창조에 몰두하였다. 초기에 현대무용가들은 각자가 규정한 미의 기준과 움직임에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담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가 처음 사용한 ‘실존하는 개인’이나 샤르트르가 제시한 ‘실존이 본질을 선

19)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는 제 2차 대전이후 실존주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연극이다. 아일랜드 작가의 베케트의 희곡으로 ‘고도’를 기다리는 상황을 몸짓과 대사를 통해 인간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업다이크는 『토끼를 기다리며』라는 중편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이것도 실존주의적 주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작품으로 각각의 경구들은 실존주의 텍스트로부터 인용되어 쓰여져 있기에 지금까지의 실존주의적 영향과 파장을 가늠할 수 있다(변종민(2004), 『존 업다이크의 실존주의 문학세계』(서울: 태학사), p.7).

행한다'와 상통하는 것이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처럼 현대무용가들은 개인의 특수한 체험에 의해 형성된 자신들만의 몸짓이자 미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자신의 자아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가치 체계도 거부하며 내적 주관성에 관한 충실한 표현이었다. 다음 항에서는 앞서 언급한 실존주의적 해석의 연장으로 '인간의 유한성에 관한 묵도', '고독과 불안의 파토스(pathos)로의 귀환', '주체적 체험을 통한 기존 가치 거부'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초기 현대무용의 작품과 연결 지어 해석하여 볼 것이다.

1) 인간의 유한성에 관한 묵도

인간 존재는 본질적으로 상황 속에 있는 존재이며 이 구속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데서 인간의 유한성의 본질이 강조된다. 즉 던져진 인간이기에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어떤 고정적이며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그림 1〉 「아도니스의 죽음 The Death of Adonis」(1923)



〈그림 2〉 「Jeune homme assis au bord de la mer」(1836)

것이 실존주의자들의 해석이다. 이것은 인간이 마주친 부조리한 상황이지만 변함없이 유지될 완벽한 근거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여 인간의 불안은 인간을 실존으로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동시에 군중 속에서의 고독이라는 개인의 소멸을 일으키는 소외를 느끼게 해 결국 실존적 범주 내에서 절망감이 죽음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러한 죽음은 인간이 이유 없이 감당하여야 할 부조리를 뜻하며 인간 실존의 한계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테드 쇼운이 그려낸 작품 속 조각상의 모습은 인간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 테드 쇼운의 「아도니스의 죽음 The Death of Adonis」(1923)에서는 자연 속에서 운명적 삶을 이루는 인간의 사색과 죽음을 담고 있다. 테드 쇼운은 좁고 위태로운 단

상 위에 올라서서 서서히 상념에 잠긴 듯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석고상과 같이 흰색 가루로 도포하여 물질주의로부터 소외된 익명화된 인간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장 이폴리트 프랑드랭(Jean Hippolyte Flandrin, 1809-1864)의 그림 속 생육과 부활을 담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현실 속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다. 인간은 결국 무인도에 버려진 고독한 존재이기에 작은 석단 위에 올라서서 위태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인간의 생명을 담지 않은 듯 한 물질을 몸에 입혀 차가운 촉각적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박제화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소외와 함께 죽음에 이르는 유한한 존재임을 몸의 움직임을 통해 담아낸 것이었다.

모드 알렌의 1903년도 작품 「살로메의 비전」은 마임적이고 사실주의적 표현으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성경 속 헤로디아의 딸을 오스카 와일드는 살로메라 명명하는데 작품 속 움직임의 전개는 유한한 인간의 몸과 공허한 삶의 한계를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간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그녀가 바라본 죽음은 어떤 최후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자신의 요소로 보아 어떤 안이한 상태에 있는 현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종의 초월의 의미였다. 이 초월의 의미는 단순히 죽음에 있어서의 사멸이 아닌 모든 안이한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망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던 불멸에 관한 이기적인 허상과 예감을 도려내는 시각적 충격이었다.



〈그림 3〉 「살로메의 비전」

실존주의 사조에서 죽음은 가장 궁극적인 부조리이다. 그리고 현대춤 안무가들은 죽음이라는 한계성을 수용함으로써 세상 속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실존이 본질에 선행하는 궁극적인 부조리를 표현하였다. 현대 무용가들은 춤을 통해 실존의 주인공으로서 죽음의 부조리를 수용하고 이를 움직임에 담아내었다.

2) 고독과 불안의 파토스(pathos)로의 귀환

키에르케고르는 사상의 출발을 인간의 본질로 보았고 그것은 고독과 불안의 '감정'이라 강조하였다. 이러한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에 의해 제한되거나 보편화될 수 있는 수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다울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해석이다. 세계 속에 인간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잣대로 주어지는 합리적인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이에 치중하며 자신을 억제하기도 한다. 예술에 있어서도 평가는 이에 반영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미에 관한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각자의 사람을 말하거나 인생을 담지 못한다. 나만의 길, 나다운 길은 절대적인 공감의 로고스(Logos) 측면이 아니라 소외되고 불안한 파토스(pathos) 측면에 치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도라 덩킨의 「아베마리아」(1914)에서는 두 아이의 죽음에 관한 절망적인 고뇌를 몸으로 표현하였다. 엄숙한 에티튜드로 모성을 고통과 연민의 복합체로 나타낸다. 아이를 안듯 흔들거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간청하는 듯 보인다.²⁰⁾ 불안, 죄, 절망, 공포, 허무, 죽음 등에 관한 해석은 무용가마다 각각 다른 것이다. 따라서 존재의 상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인간의 소외와 퇴락을 말할 수 있는 감정은 타자와 다른 나를 말하는 것으로 휴머니즘적 해석이라 할 수 있겠다.

1936년에 미국 안무가 도리스 험프리는 새로운 춤 3부작 「나의 뜨거운 열정으로 *With My Red Fires*」를 안무하였다. '사랑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관계라는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여성 가장의 파괴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사랑이 어느 누구의 로맨스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몰상식한 증오로부터 이겨낸 조용하고 희망적인 사랑을 구현하였다.²¹⁾ 거만한 여자의 타고난 힘이 증오로 변형된 몸짓을 구현하였으며 자신의 무능력에 분노하고 타인들의 행복을 시기하며 혼자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²²⁾ 감정에 관한 험프리식의 표현은

20) 샬리 베인스(1998), 『춤추는 여성』, 김수인, 김현정(역)(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pp.145-146.

21) 앞의 책 p.239.

22) 앞의 책, p.248.

타자에 관한 배려나 소속으로 한줄 맞추기 식의 앞 뒤 없는 행보가 아닌 나를 말하고 상실된 자아를 표현하는 진정한 회복이며 자기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자기 발견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엽의 인간의 특별한 감정이나 의지를 움직임에 반영한 마사 그라함은 「비탄 *Lamentation*」(1930)을 안무하였다. 그녀는 몸의 구석구석을 의미체로 발화하였으며 삶의 고뇌와 투쟁적 모습을 응축된 감정으로 관객에게 전달하였다. 이것은 ‘실존주의자들이 인간의 고뇌, 죄, 권력예의 의지, 열정 등은 이성이 파악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어 인간은 항상 이성적 판단과는 대치되는 실존의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²³⁾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



〈그림 4〉 그라함의 「비탄 *Lamentation*」

독교의 세마포 혹은 장의와 같이 온몸을 덮고 있는 한 여인의 의상과 몸짓에서 현대사회의 정신적 불모, 기독교 믿음의 문제, 전통적 가치 체계의 거부 등 실존주의적 주제 의식의 단초를 감성적 표현으로 제공받는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성으로 통제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면, 즉 감성과 충동이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이성보다 감성의 지배를 더 받는다고 보는 실존주의자들의 해석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주체적 체험을 통한 기존 가치의 거부

기존의 발레는 기본적으로 도구적 이성이라는 이름하에 객관을 말하고 수치화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발레는 이전 기계미학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카데미한 신체표현으로 인식되었던 발레의 움직임은 개개인의 인간적 욕구와 체험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명력을 잃게 되고 기계문명과 같이 조립된 느낌으로 극장 속 기계의 파이프나나사와 같은 기능적 역할로 서열화되었다. 자본주의라는 경제구조에서 한 인간은 거대한 조직 속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톱니

23) 변종민(2004), p.49.

바퀴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발레작품 속 개개인의 움직임은 조직도로 구상되었고 이름이 없는 군무의 역은 자신의 인권을 상실한 것일 뿐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 현대무용가들은 몸짓을 통해 나 자신을 말하였다. 참다운 진리, 아름다움은 주관적 체험으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미를 창안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본질이 아니라 실존이다’라는 의미도 보편성이 아닌 인간 개개인이 가지는 특수성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이었다.²⁴⁾ 이것은 다시 말해 현실의 삶,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발 딛고 있는 현실주의로 움직임을 통해 상대적, 주관적 체험을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객관화, 수치화하였던 미를 개개인의 취향으로 해석하여 군무가 아닌 한 인물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키에르케고르가 ‘사람이 단독자가 된다는 것은 낱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말이다.²⁵⁾ 따라서 초기 현대춤은 기존의 가치 체계를 거부하는 몸짓이자 실존적 체험의 몸짓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특수성을 자신들만의 움직임에 담아내고 있다. 실존은 논리적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체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각자의 움직이는 몸짓으로 보고하는 것이었다.

예로 미국 현대무용가 레스터 홀튼(Lester Horton)은 해부학과 움직임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몸짓으로 시대 속 자신을 이야기하였다. 정태적인 카테고리에서의 움직임을 벗어나 역동적이고 개성적인 몸짓을 보여주었다. 뻗뻗하게 곧추세운 허리와 상체에 변칙적인 몸짓이 혼재되었으며 공간 사용에 있어서도 틀어지고 기울어진 방향 감으로 새로움을 전달하였다. 미국 현대 여성무용가 마사 그라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생동하고 변하는 움직임 자체가 현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발레라는 시간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절대적 미의 규범에 대적하기 위해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대적인 미’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자기 경험과 자기 이해를 표현한 것이었다. 자기가

24) 백승균(1987), 『실존철학과 현대』(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p.202.

25) 표재명(1992),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서울: 서광사), p.106.

자기를 원하는 대로 움직임을 실행하였기에 인간은 굳어버린 존재가 아닌 열려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켰다. 마사 그라함의 움직임은 내면의 모습과 실존의 고통을 발산하고 있다. 발레에서 추구하는 직선과 곡선의 길고 부드러운 라인이 아니라 매섭고 강력한 수축된 커브를 골반과 가슴에서부터 전개하였다.²⁶⁾ 이것은 발레에서 지향하는 선이 아니었음은 물론 골반이나 가슴은 고정된 틀로 기능하였던 신체 전신의 숨겨진 일부분으로서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블로흐(Ernst Bloch, 1885-1979)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보증하는데 그의 아직-아니-있음(noch-nicht-sein)은 존재론에 관한 의미가 굳어버린 것이 아닌 열려져 있다는 의미였다. 그의 존재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나 지향으로서 이것은 인간의식의 특징일 뿐 아니라 모든 객관적 현실의 내적인 근본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의 아님의 의미는 어떤 공허하고 아직 미규정적이고 미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것이 있고 없고의 대상적이고 공간적인 것의 부정이 아니라 동시에 아직 아님으로서 시간적이기도 하다. 아님은 결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결핍되어있는 존재임을 내세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 기대, 지향을 인간의식의 특징으로 본 것으로 현대무용가들이 각자 자신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음을 해석한 것이라 접근할 수 있다.

IV. 독일 현대춤에 나타난 인간의 유한성, 파토스 그리고 주체성에 관한 논의

1. 마리 뷔그만(Mary Wigman)

1) 마리 뷔그만의 생애와 작품

그녀는 1886년 독일 하노버에서 출생하여 1910년 유토피아적으로 설계된 헤레

26) <http://www.legalaffairs.org/issues/January-February-2004/exhibit_janfeb04.msp, 2014.1.18>

라우에 있는 에밀 자크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남녀 공학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그의 지도로 음악의 동작 훈련을 받았고 교사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율동적인 경험과 움직이는 방법이 조화를 이루었던 그리스적인 인간개념의 현대화를 경험하였다. 이후 음악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고민하던 중 즉흥춤을 본 친구 에밀 놀데의 권유로 루돌프 라반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녀는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와 함께 라반의 즉흥성과 움직임 분석을 기반으로 두 선생님의 스타일을 접합시켰다. 그들의 이론과 움직임을 통해 자신만의 움직임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반주 없이, 때로는 타악기의 소리만으로 안무하였는데 이러한 스타일을 앵솔루트 댄스(Absolute Dance)라 칭하였다. 1920년 드레스덴에서 처음 자신의 무용학교를 개설하여 후학들을 가르쳤고 1928년에는 런던에서 공연하여 최고의 창의적 안무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the newest form of the oldest art in the world”)²⁷⁾ 1931년에는 뉴욕에 분교를 개설하여 독일식 표현주의의 정수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1930년대 초반에만 미국에서 3번의 순회공연을 이루었다. 그녀의 제자는 하랄트 크로이츠베르크, 이본 게오르기, 마르가레테 발만, 하나 홀름을 비롯해 수천 명에 이른다. 뷔그만은 독무에서 빛을 발했지만 나치 하에서 작업들은 선동적인 군무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뷔그만의 활동은 나치시기동안 중단되었고 학교는 폐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에게 쫓겨 고국을 떠났으나 1949년 서베를린으로 돌아왔고 1953년에는 독일연방공화국 훈공 십자장을 수여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노년, 죽음, 여성의 삶, 전쟁의 파괴상을 비롯하여 어렵거나 금기시된 소재들을 포함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움직임 자체에 대한 탐구, 반주곡들에 대한 실험들이 두드러졌다. 대표작으로는 「죽음의 소리 *Death Call*」, 「삶에 대한 7가지 춤 *The Seven Dances of Life*」(1918), 「죽음의 춤 *Dance of Death*」, 「토텐말 *Totenmal*」, 「숙명의 노래 *Song of Fate*」, 「공간의 형상 *Space Shape*」, 「흔들거리는 풍경 *Swinging Landscape*」 등이 있다. 저서는 『무용의 언

27) Jiyun Jung(2013), Mary Wigman and German Modern Dance: A Modernist Witch? <<http://fm.oxfordjournals.org>>

어: *Die Sprache des Tanzes*』(1963)가 있다.

2) 뷔그만의 작품에 나타난 실존적 의미와 해석

뷔그만의 「마녀의 춤」은 1914년 2월 11일 그녀의 첫 번째 솔로작인 「렌토 *Lento*」와 함께 공연되었다.²⁸⁾ 1914년 라반의 조교가 되어 첫 안무를 발표한 것인데 이는 아시아의 이미지에서 착안한 것으로 넓은 의상이 날개처럼 뻗어지고 큰 모자를 쓰며 뛰어오르는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1926년 발표된 「마녀의 춤 II」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첫 작품과는 달리 자바와 일본문화의 혼종적 성격이 나타났다.²⁹⁾ 작품 속 무용수는 거의 앉은 자세로 지면에 몸을 밀착시켜 서서히 움직임의 실행하였다. 발레에서의 수직 상승적인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대지 지향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다. 가면을 쓰고 원시적인 타악 리듬에 맞춰 거칠고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춤을 췄다. 이렇듯 그녀의 몸짓은 인간의 어두운 측면과 추를 미로 표현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이후 1926년 「마녀의 춤 II」은 인간 본래의 실존을 자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본래의 자기를 찾으려는 실존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충격적인 움직임과 의상 그리고 가면이 더하여져 압도적인 실존에 관한 그녀의 고백은 매력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녀는 마녀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샬리 베인즈는 그녀의 작품에 관하여 ‘으스스하고 강하게 비틀린 불규칙한 타악기 리듬과 각이 진 제스처를 가지고 도취된 것을 리드미컬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³⁰⁾



〈그림 5〉 1914년 「마녀의 춤」



〈그림 6〉 1926년 「마녀의 춤 II」

28) 앞의 글.

29) 가미자와카즈오(1990), 『20세기 무용사』, 국수호(역)(서울: 현대미술사), p.102.

30) 샬리 베인즈(2012), p.223.

그녀의 이미지는 어둡고 골똘히 생각하는 신비스러운 성격, 그리고 죽음, 마녀, 전쟁 등과 연관되어있었다. 땅에 붙어 앉아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인간의 입지에 대해 비판적이고 추상적인 전망을 표현하였다.³¹⁾

그녀의 구부러지고 웅크려진 사지는 마녀로 국한된 모습이 아니다. 당시의 고뇌 속 인간의 몸부림을 보여준다. 흑백의 낡은 느낌이 오랜 시간을 말하고 날카로운 둔탁한 움직임이 화면의 중심에서 운동감을 형성하기에 갈급함과 동시에 존재성을 발현하고 있다. 반복되는 움직임과 굽어지는 손 움직임을 통해 화면의 밀도를 더해주고 긴장감을 더한다. 잔뜩 긴장한 채 웅크리고 뒤틀어진 포즈는 나약한 인간존재의 고뇌를 전달한다. 그녀의 몸짓은 인간존재에 대한 절망과 불안 그리고 고립된 인간의 소외상을 제시하기에 이 사회에서의 개인의 존재와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떠오르게 한다.

“마녀는 공허하고 미친 듯 보인다. 그녀는 우리를 잡으려 한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바라본다. 그녀는 우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거의 만약 우리가 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우리를 가졌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말이다. 그것은 광기였다. 날카로운 웃음 그것은 절망이었고 비참함이고 불명예스러운 공허함이었다.”³²⁾

구덩이에 빠진 동물과 같이 인간이 처한 상황을 어두운 흑백의 색감과 기하학적 움직임으로 선보이고 현재 시간의 동결을 말하기 위해 공간까지 결빙시킨 듯하다. 당혹감과 긴장감을 비판적인 사색으로 제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춤을 통해 확인 시켰다. 이것은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 존재의 문제를 환기시키려는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이었다. 인간은 인공적 환경에 갇혀진 동물과도 같은 것이기에 환경의 구속된 마녀의 실존, 혹은 인간의 실존적 경험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움직임을 통해 구현한 것이었다.

31) 조안 카스(1993), 『역사 속 춤』, 김말복(역)(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pp.322-323.

32) Hannoverscher Kurrier(1929), *Anonymous Review*(Cited by S. Manning, *Ecstasy and the Demon: Feminism and Nationalism in the Dances of Mary Wigman*(Berkeley, 1993), p.129. Translation by Manning).

춤을 추는 중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는 죽음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을 알았다.³³⁾

또한 그녀는 인간의 실존적 부조리를 몸으로 표현하였다. 고독, 죽음, 격리라는 유쾌하지 않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과장과 왜곡을 몸에 입었고 죽음의 지향점을 말하기 위해 바닥에 몸을 가까이하였다. 땅과 밀착하여 쭈그러 웅크리기, 몸을 끌어 이동하기, 발바닥으로 바닥을 두드리기 등과 같은 몸짓을 포함하였다. 마리 뷔그만은 자신의 저서에서 ‘죽음은 그 오만한 태도와 음산하고 마치 안달이 난 듯한 위협적인 몸짓으로 내게 찾아올 때마다 늘 장엄함 정도의 초연함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순간조차도 죽음은 우리의 한계로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침묵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경의를 표한다.’³⁴⁾고 초월적인 사고를 전한 바 있다. 그녀는 죽음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다. 홀로 있음, 고독, 그리고 격리 등의 상태는 실존주의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불변적인 인간의 운명이자 인간 조건의 일반³⁵⁾인데 마리 뷔그만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움직임의 통해 그려내었다. 실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단독성, 개별성³⁶⁾의 문제를 그녀는 단독적인 심경의 고백을 통해 표현한 것이었다.

그녀의 또 다른 작품 『토텐말』(1930)³⁷⁾에서도 인간 실존의 부조리함과 존재에 관한 한계를 죽음의 이미지로 표출하였다. 1차 대전에서 희생당한 독일 병사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그림 7〉 에밀 놀데의 『mask still life III』 (1911)

33) 조안 카스(1993), p. 323.

34) 마리 뷔그만(1963), 『무용의 언어』, 윤계정(역)(서울: 현대미술사, 1994), p. 18.

35) 아놀드 하우저(1983), 『예술의 사회학』, 최성만(역)(서울: 한길사), p. 354.

36) O.F. 볼노브(2006), p. 78.

37) 당시 예술문화는 종말론적인 절망과 전쟁 및 그 후유증에서 오는 독일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혁신적인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산주의를 숭배하거나 국가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관심한 것과는 다르게 그 당시 세대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해답을 추구했다(샬리 베인스(2012), p. 222).



〈그림 8〉 1930년 「토텐말」

여성 합창단들이 그들의 죽은 혈육을 오염하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면을 착용하여 인간성의 어두운 측면, 전쟁의 참화, 죽음이라는 지점을 몸으로 말하는 것이었다.³⁸⁾ 뭉크의 작품 속 「절규」(1923)와 같이 광기어린 격정을 거칠고 이교도적인 충동으로 표현하며 인간 감정의 탄식과 절망을 쏟아내었다. 일본

의 노 가면을 인용한 무용수들의 가면은 과거의 불가사의한 분위기에서 등장하는 망령된 존재처럼 보인다. 마치 에밀 놀데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마스크와 유사한데, 인간의 괴기스러움과 원시적인 면모를 강조한 것이었다. 거칠고 미개한 광기는 유럽계몽주의적 가치 및 합리주의에 관한 비판이자 예술적 발견으로 이름지어진 양식에 관한 도전이었다. 작품 속 움직임은 현대가 품지 못하는 태고의 생명력과 강렬한 그로테스크적인 풍모를 발산하였다. 정제되지 못한 혹은 세대적 취향을 묵과하는 것이었다. 작품 속에 인간의 모습은 비극적이고 고독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가면으로 새겨진 극도로 얇은 두 눈과 처진 입은 순수한 절대 고독의 상징 그 자체였다. 그녀는 존재의 본질을 응시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적 불안을 통해 그것을 찾기 위한 여정을 작품에 담아내었다.

그녀가 생각한 실존적 인간은 정의되어지는 획일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의내려지는 존재였다. 마녀, 죽음, 노화 등의 주제를 자신의 해석으로, 움직임으로, 표현으로 구체화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실증주의적 탐구 방식으로 인간을 대상화하였지만, 더 이상 인간의 실존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 그리고 분리될 수도 없는 자신의 실존을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해석으로 설명하였다.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부조리와 우연성이 가득한 존재에 관한 이유 없는 불안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고 샤르트르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유를 움직임 창안으로 끄집어내었다. 그녀는 새로운 움직임에

38) 수잔 오(1986), 『서양 춤 예술의 역사』, 김채현(역)(서울: 이론과 실천, 1990), p.102.

관한 참된 용기를 가지고 숙명적 아름다움에 도전을 가하였고 인간의 부조리에 관한 죽음을 자신의 의지를 통해 관철하여 표현하였다. ‘인간의 실존에는 이유 없는 불안이 있다’고 하이데거는 언급하였는데 마리 뷔그만은 인간이 암울한 이미지를 고독하게 사계를 마주하고 나아가는 창조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쿠르트 요스(Kurt Jooss)

1) 쿠르트 요스의 생애와 작품

쿠르트 요스는 독일에서 출생하여 1901년부터 1979년 사망할 때까지 춤 역사 속 위대한 발걸음을 남긴 무용가였다. 특별히 탄츠테어터라는 형식을 창안하여 에센을 중심으로 피나 바우쉬와 같은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하였다.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시각예술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루돌프 본 라반을 만난 것은 1920 년이었다. 4년 동안 그와 함께 춤을 추었고 이후 라반이 무보체계를 창안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첫 작품은 오랫동안 춤을 함께 한 동료 리더(Sigurd Leeder)와의 「두 명의 남성무용수 *Two Male Dancers*」였다.³⁹⁾ 이후에는 라반과 결별하여 자신의 발레단(Die Neue Tanzbuhne)을 만들어 활동하였고 작곡가 프리츠 코헨(Fritz A. Cohen)을 만나 여러 작업을 함께하였다. 그의 안무에서는 음악적 영감과 함께 드라마틱한 아이디어가 통합적인 형식으로 표출되었는데 독일 여러 도시에서 무용감독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특별히 그의 움직임은 아카데미 발레 테크닉과 함께 표현주의 성향의 움직임이 조화로우름을 이루었다.



〈그림 9〉 「녹색 테이블」

1927년도 「죽음의 춤」이 무대화되었고 이는 아방가르드의 효시로 여겨졌다. 그는 스토리나 주제가 있는 작품을 선호하였고 1929년부터 구상된 「녹색 테이블

39) <<http://www.dance-teacher.com/2011/08/kurt-jooss/>, 2014.1.21>

*Grüne Tisch*과 연결하였다. 중세의 죽음의 춤이 주는 이미지에서 착상된 본 작품은 의인화된 죽음의 등장을 통해 전쟁에서 희생된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리며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에는 「녹색 테이블」이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계무용콩쿨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였다. 당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반전의 메시지를 포함한 진정한 현대 작품이었다.

이러한 날카로운 주제 의식으로 인해 1933년 그는 나치를 피해 홀랜드를 거쳐 영국으로 몸을 피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투어하며 데본(Devon)의 달링톤 홀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1944년에는 인간 재앙과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판도라」를 안무하였다.

1949년은 영국을 떠나 독일 에센으로 되돌아왔다. 이곳에서 그는 1968년 은퇴하기 전까지 19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은퇴 후 그는 1971년 조프리 발레단에게 「녹색 테이블」을 전수하였는데 그의 경이롭던 움직임 훈련과정이 무용수인 홀더(Christian Holder)에 의해 회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8년 후 자동차 사고와 이후 상처가 회복되지 못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그의 딸 안나(Anna Markard)가 무용단의 슈퍼바이저로 활약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공연되었고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작품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이 남아 있다.

2) 쿠르트 요스의 작품에 나타난 실존적 의미와 해석

독일춤에 현대적인 것을 가미하여 형식적인 몸짓의 개혁을 감행했던 쿠르트 요스는 연극적인 움직임과 표현적 영화, 무대의 재구성을 통해 영역간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1932년 「녹색 테이블」은 파리에서 열린 안무가 콩쿠르에서 최고상을 받은 작품으로 시대성과 사회적 공간이 일치하는 작품이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반영하며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번뇌와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 점차 비인간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이미지를 무거운 몸짓으로 형상화시켰고 인간주체의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과학의 발달은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기계문명을 발달시켜 인류사회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그 결과 인간은 과학 문명과 물질문화에 종속하게 되었고 1차 2차 대전이라는 재앙을 가져왔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켰고 나아가 인간을 파멸의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러한 혼란의 도가니를 쿠르트 요스는 몸짓을 통해 표현하였다. 인간의 상실된 삶의 의미와 자아의 정체성마저 손상되는 불안의식을 반영하였다. 실존주의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 소외(self alienation)라고 한다. 생존의 불안과 삶의 허무의식에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말하는데 본 작품은 이러한 실존주의적 해석에 기여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쿠르트 요스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각각의 캐릭터를 통해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슬픔의 순간과 아픔을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했고, 무대라는 밀폐된 공간을 통해 아우성치고 비틀어진 인간들의 모습을 풀어내었다. 녹색테이블 위에 마스크를 쓰고 클래식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가식적인 동작을 일삼는 정치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가공할 만한 허무감을 전시 상태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이중적 모습으로 대비시킨다. 여기서 그는 현대인의 실존적인 딜레마의 핵심을 표현하였다. 늙은 노모의 처절한 몸짓, 전시 속 군인들의 좌절과 절규, 죽음 캐릭터의 압도적 카리스마, 여기에는 인간의 죽음, 탄식, 사랑이 녹아져있다.

쿠르트 요스는 기존 전통과는 위배되는 발레와 현대춤의 움직임 어법을 통합하여 그만의 몸짓을 창안하였다. 인체를 과장하고 뭉툭한 모습으로 등장시킴으로 비극적이고 고독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였고 발레 어법의 뒤를어짐과 생략의 과정을 통해 형태의 단순함을 추가하였다. 여기에는 미학적 어법의 새로



〈그림 10〉 「녹색 테이블」 인트로



〈그림 11〉 게오르게 그로츠의 「일식」

은 상징성을 지닌다. 인간형상의 축소를 통해 조형적 차원을 넘어 사회 속 인간의 문제를 부각함으로 메시지를 극단적으로 전달하려하였다. 「녹색 테이블」은 인간의 절망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극적인 형태로 나타내었다. 인트로(Intro)는 마치 게오르게 그로츠(George Grosz 1893~1959)의 「일식」(1926)을 연상시키는데 「녹색 테이블」은 우스꽝스러운 관료들의 탁상공론의 장소로 보이며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캐릭터는 그로츠의 그림 속 해골과 죽음이라는 캐릭터의 의상이 일치하고 있다.⁴⁰⁾ 이것은 이전 재현의 틀을 깨는 충격적인 몸짓의 이미지였다. “단 하나의 움직임도 단 하나의 스텝도 요스의 탄츠 드라마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채로 표현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단 하나의 단일 동작도 내용에 부합되는 의미 있는 동작이 포함된다”⁴¹⁾는 그의 진술처럼 부패된 인체들의 기이한 상황과 죽음의 몸짓은 인간의 부조리함과 한계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죽음에 관한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은 궁극적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본 작품에는 참 실존의 모습은 결코 죽음을 주저하거나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 하지 않고 과감히 들추어 직면하도록 말하는 안무가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대전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군인보다 민간인이 대량학살을 당해야했던 처참한 현실을 춤의 몸짓으로 그리고 있다. 전쟁의 아픔은 죽은 시체들을 보고 무감각해져가는, 승배의 대상이 아닌 고깃덩어리로 전락한 모습을 바라보아야하는 것이었다. 실존의 개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항상 구체적인 상황 속에 처한 존재이다.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다. 인간은 자체에 근거가 없으므로 늘 바깥을 향하고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⁴²⁾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쿠르트 요스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질문하고 있다. 인간은 이성으로 정의되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부조리와 우연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앞선 현대무용가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생존문제에 대

40) 이지원(2013), 『춤 테마로 읽다』(서울: 두술), pp.223-224.

41) 수잔네 솔리허(2006), 『탄츠테아터』, 박균(역)(서울: 범우사), p.111.

42) 남경태(2006), 『개념어사전』(서울: 들녘), pp.244-245.

〈표 1〉 독일 현대춤에 나타난 실존주의철학의 적용과 해석

철학적 논의		현대춤의 적용	독일 현대춤의 유한성, 파토스, 주체성의 표현		
			마리 뷔그만의 「마녀의 춤」	쿠르트 요스의 「녹색 테이블」	작품 해석
			몸짓 및 표현		
죽음을 향한 현존재	키에르케고르 니체 야스퍼스 하이데거 샤르트르	인간의 유한성에 관한 묵도	죽음의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 바닥에 몸을 밀착. 구덩이 속 절규, 흑백의 색감으로 격리를 표현	부패된 인체들의 기이한 상황과 죽음을 충격적인 몸짓과 이미지로 표현	인간의 반성적 주제 포함/죽음에 직면한 부조리한 현재적 이미지 강조
소외와 불안정한 존재		고독과 불안의 파토스로의 귀환	가면을 통해 소통의 절단과 순수한 절대 고독을 상징	밀폐된 공간을 통해 아우성치고 비틀어진 고독한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	객관화된 미가 아닌 개별화된 감성에 주목/안정적 포즈가 아닌 불안한 움직임 과정 포착
주체적인 존재		주체적 체험을 통한 기존 가치의 거부	비극적이고 고독한 내면의 감정을 과장과 왜곡을 통한 주체적 몸짓으로 표현	발레 어법의 뒤틀어짐과 생략의 과정을 통해 형태를 단순함으로 내면성 강조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움직임 구성 및 전개/기승전결 거부로 열린 결말

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인간 본질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인간의 실체에 대한 의미부여와 자아개념, 그리고 획일화되어 가는 인간 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강조점을 둘 수 있는 것은 절망과 인간에 관한 깊은 통찰로 가득 찬 주제와 움직임이었다. 무용수들의 몸짓은 공감을 거부하며 자신의 움직임을 창조하며 자신을 말하고 있었다. 현대무용가들은 인간을 물질적이고 인간 본질의 아름다움을 제거한 상태를 반영하여 마치 달리나 베이컨의 그림처럼 인체가 갈기갈기 찢겨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혹은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무엇이나 하는 끊임없는 반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당위(moral)의 문제를 가지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 소외, 인간 상실의 시대 가운데 인간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획일화된 춤의 움직임에서 상실한 자기 모습을 되찾고 본래의 자기에게 환귀하고자 한다. 동시에 창조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허무성을 들추어내어 그 한계와 동시에 극복을 몸으로 표현하고 제시하였다.

사실 시대마다 획일적 움직임은 나타났다. 선사시대에는 생식 본능인 다산을 상징하는 주술적인 의미와 동일시되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화 속 인물과 같은 이상미와 조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으며 중세에는 종교적 색채로 인간의 의미는 간과되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해부학의 영향으로 사실적 비례를 지향하는 조화의 성격이 컸었다. 따라서 발레의 움직임은 2차원적 확장된 선과 구도를 지향하는 디자인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현대무용가들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자 인간 본질이라는 개념적 문제를 말하는 고뇌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와 세계를 말하고 현실을 맞이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모순과 갈등을 그대로 응시한 듯이 예술작품은 주관적이고 극적인 표현 감각, 내면세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색과 선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을 인식하는 주체이자 시간 흐름의 한 단면에 불과한 인간의 존재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발레에서 연출하는 순간의 포즈가 아닌 움직임의 과정을 중시하였다. 미래, 과거, 현재에 관한 시간을 중첩하는 방법으로 현재적 이미지를 의도한 것이다. 반복되는 움직임은 축적된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다. 반복적 행위와 시간의 축적을 통해 형상에 접근하고 이러한 과정은 자아내부의 내약함을 극복하며 주체적 자아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존재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어진 삶에 열정적인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한 중요성은 완결되지 않는 현대춤의 성격과도 상통한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인간의 부조리한 죽음에 관한 인정을 작품에 담을 때 결과가 없는, 결말을 전제할 수 없는 열린 형태로 무대화된다. 이것은 발레의 기승전결과 달리 결말이 없는 것 자체가 실존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대춤은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마치 카프카의 『변신』에서 왜 갑충류로 변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⁴³⁾ 이는 미메시스적 전통에 입각한 서술관점이 무너져 버

43) 장진경(1993), 카프카의 변신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9.

린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열린 종결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또 다른 실존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실존은 종결이 아닌 지속적인 투쟁과 형성의 상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열린 결말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운명을 움직임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V. 나오는 말

실존주의 철학은 실증주의와 합리주의에 반동한 사상으로 20세기를 관통하는 사회적 불안과 허무,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로 태동되었다. 키에르케고르에서부터, 니체, 하이데거, 샤르트르로 이어지면서 상대주의적 신념 속에서 실망하고 의심하게 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진정한 인간상을 확립하고 자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핵심을 담고 있다. ‘인간의 죽음에 관한 유한성’과, ‘고독과 소외의 불완전한 존재’, 마지막으로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논점에 초점을 두고 실존주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무용가 뷔그만과 요스는 작품을 통해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 어떤 고정관념이나 가치 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한 경험의 산물로 스스로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뷔그만은 실존적 인물로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현하는 마녀를 통해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제기하며 동시에 불완전한 존재로서 전통적 체계를 거부하는 자기 구원의 원천을 몸으로 말하였다. 또한 요스는 죽음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캐릭터의 창출을 통해 체험적 고백과 주체적 움직임을 이루어 나갔다. 이들의 표현은 주체적인 사고와 진리, 내면적 성찰과 행동에서 발단한 것으로 실존주의의 한계와 극복에 관한 고백이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이 가진 삶의 성질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선택하고 이에 관하여 책임을 이루는 실천적 움직임에서 현대무용가들의 예술과 움직임 그리고 현대사회에 관한 고민을 조우하게 된다.

이들의 춤은 먼저 생존의 불안과 삶의 허무의식에서 발단한 몸부림으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으려는 인간 실존의 부조리함을 죽음이라는 문제로 표현하였다. 죽음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전개는 직면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인간 힘을 보이는 인간의 초월적 모습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실체 고유성, 의지, 감성을 무시하는 합리주의에 강력히 반발하여 이성적 논리의 잣대로 인간 개개인의 구체적 특성을 통합하는 획일적 미의 개념화에 반대하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에 관한 문제이자 감성적 표현이었다. 개개인의 춤은 감정을 통해 분출된 불완전한 인간에 관한 고백이었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무리 지워지는 것이 아닌 나만이 말하고 담을 수 있는 감성적 외침이었다. 세 번째는 주체적인 체험을 반영한 인간실존에 관한 표현이었다. 구성과 공간 시간에 관한 열린 개념으로의 재창조라 하겠다. 실존주의적 초월자의 모습은 작품 속에서 시공간의 사고나 색채의 이미지에서도 독특한 자기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열린 결말로서 한계나 고정적 틀을 거부하는 주체적 형식의 창안이었다.

현대사회는 개성, 창의성, 독창성을 외치기는 하나 각각의 인간의 자아와 실존에 관한 고민은 온데간데없고 어느덧 획일화된 공공의 미와 목표를 추구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미의 지향점을 향해 성형이 난립하고 학벌사회에서 대학교육과 취업이라는 같은 길을 걷지 못하면 왕따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시대에 실존주의에 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하겠다. 모두 다 맞이하는 죽음에서 인간은 태어남(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 선택(choice)이라고 언급한 사르트르처럼 현대 무용가들의 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스스로 사고해서 형성해갈 수 있다면 자아상실이나 고독 소외와 불안 허무 등의 문제를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현대 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다루어 살펴었지만 지금도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실존적 인간이라는 주제를 포괄하지 못한 아쉬움을 지닌다. 앞으로도 실존주의라는 개념적 특성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춤 해석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기현 외(2013).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서울: SFC출판부.

- 김종호(1983). 『역사철학I』. 서울: 삼성출판사.
- 남경태(2006). 『개념어사전』. 서울: 들녘.
- 백승균(1987). 『실존철학과 현대』.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변종민(2004). 『존 업다이크의 실존주의 문학세계』. 서울: 태학사.
- 이중(1972). 『교육과 사상』. 서울: 배영사.
- 이지원(2013). 『춤 테마로 읽다』. 서울: 두술.
- 임춘감(1980). 『키에르케고르의 생애와 사상』. 서울: 종로서적.
- 임춘식(1991). 『현대사회와 인간 소외』. 서울: 한남대학교 출판부.
- 표재명(1992).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 (서울: 서광사)
- 마리 뷔그만(1963). 『무용의 언어』, 윤계정(역). 서울: 현대미학사. 1994.
- 아놀드 하우저(1973). 『예술과 사회』, 한석중(역). 서울: 홍성사. 1990.
- 아놀드 하우저(1983). 『예술의 사회학』, 최성만(역). 서울: 한길사. 1996.
- 반리이센 외. 『니체 사르트르, 프로이트, 키에르케고르』. 이창우(역). 서울: 종로서적. 1983.
- Frite Heineman(1976). 『실존철학』. 황문수(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9.
- 장폴 샤프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역). 서울: 문예출판사. 1981.
- 조안 카스(1993). 『역사 속 춤』. 김말복(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 O.F 볼노브. 『실존철학』. 최동희(역). 서울: 간디서원. 2006.
- 샬리 베인스(1998). 『춤추는 여성』. 김수인. 김현정(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S.E. 프로스트. 『철학의 이해』. 서배식(역). 서울: 현암사. 1985.
- 수잔 오(1986). 『서양 춤 예술의 역사』. 김채현(역). 서울: 이론과 실천. 1990.
- 수잔네 솔리히. 『탄츠테아터』. 박균(역). 서울: 범우사. 2006.
- Paul Foulquie(1978). 『실존주의』. 박은수(역). 서울: 정음사. 1983.
- 가미자와카즈오(1990). 『20세기 무용사』. 국수호(역). 서울: 현대미학사. 2000.
- 마중수(2001). 인체형상을 통한 현대인의 내면세계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은정(2001). 도시 주변 개체의 일상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인순(1993). 실존주의 철학을 통한 무용의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진경(1993). 카프카의 변신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Manning, Susan A.(1993). *Ecstasy and the Demon: Feminism and Nationalism in the
 Dances of Mary Wig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iyun Jung(2013). Mary Wigman and German Modern Dance: A Modernist Witch?
 <<http://fmml.oxfordjournals.org>, 2013.12.1>

The Makers of Modern Dance in Germany. Narrated by Isa Partsch-Bergsohn.
 Volumes 1 & 2, 2001.

<The Green Table: a dance of death in eight scenes" and "Swansong." Well Go USA,
 Inc., 2006>

<<http://www.dance-teacher.com/2011/08/kurt-jooss/>, 2014.1.21>

<[http://www.centrepompidou.fr/cpv/ressource.action?param.id=FR_R-6dc45
 b097f2ca147939be4c4eddea5f¶m.idSource=FR_E-fb2b12d84d474cee
 225dd6c8898dc8f](http://www.centrepompidou.fr/cpv/ressource.action?param.id=FR_R-6dc45b097f2ca147939be4c4eddea5f¶m.idSource=FR_E-fb2b12d84d474cee225dd6c8898dc8f), 2014.1.10>

<[http://www.legalaffairs.org/issues/January-February-2004/exhibit_janfeb04.
 msp](http://www.legalaffairs.org/issues/January-February-2004/exhibit_janfeb04.msp), 2014.1.18>

논문투고일	2014년	2월	15일
심사일		2월	20일
심사완료일		2월	28일

Abstract

Existential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German Modern Dance in the 20th Century

Malborg Kim* · Jiwon Lee**

*Professor of Dance, Ewha Womans Univ**

*Lecturer in Dance, Sungkunkwan Univ***

Opposition to Positivism and Rationalism, Existentialism was born out of social unrest and, a futile and unreasonable reality that pierced the 20th century. Starting from Kierkegaard, Nietzsche, Heidegger, and to Sartre, humanity was disappointed and suspicious within the relative faith. So the focus of existentialism is on looking toward the inner self, establishing a true human character and going back to our ego. As Sartre once said, where everyone faces death, being human is a choice between life and death. Actionable movement, where we know the properties of life, choose life's problems on our ow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it, encounters the art, movement, and worries of the modern society of modern dancers.

Dances of early modern dancers can be explained in several characteristics when interpreted with Existentialism. First is that they stand strongly against rationalism that ignores one's true identity, will and emotion. They are also against a uniform beauty that combines all othe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a rational standard and they have made their own new beauty. This is an emotional side or of their experience and identity. Second is men's irrational existence in a struggle that started with anxiety of living and emptiness of life to find one's true self expressed in death.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development of death is a face of transcendent humanity that confronts reality, does not lose hope and shows strength. The third is a recreation of open construct, space and time. Existentialist portrayed one's unique value in thought of space, time and images of color, and refused a fixed frame or limitations utilizing open endings.

Representative of this philosophy was the German dancers Wigman and Jooss

who depicted active men in their work. They did not portray someone in a stereotype or within a set of values but showed ones' self with the results of what they experienced. Wigman expressed with the body an existential being through a witch who realized her destiny with her own will and at the same time an incomplete being who sought self-salvation while denying traditional rules. Jooss also made experienced confessions and autonomous movement by creating divergent interpretations and characters of death. Their s are a confession of subjective thought, truth, introspection and action that leads to limitations of existentialism and conquest.

This research dealt with early modern dance but has limits to encompassing the existential being dominantly seen today. One hopes that diverse interpretations of dance will be achieved upon the conceptual properties of Existentialism.

keywords: 실존주의 철학(Existentialism Philosophy), 마리 뷔그만(Mary Wigman), 쿠르트 요스(Kurt Jooss), 죽음(death), 주체성(subjectivity)